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대폿집 기행

만화가 허영만 선생이 출연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백반집을 다니는 일인데, 꼭 백반집 말고도 대폿집이며 일반 식당이며 두루 다닌다. 백반집은 누구나 좋아하는 밥집이고, 그걸 방송으로 내보내니 인기도 높다.

언젠가 한 출판업자가 책을 같이 내 보자고 해서 대폿집을 주제로 하자고 한 적이 있다. 그리하여 한두 집 다니던 것이 꽤 이력이 쌓였다. 책이란 것도 일이고, 노동을 팔아서 돈과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백반집·대폿집 다니는 건 일종의 취미다. 시간이 나면 책을 내겠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좋아서 다녔다. 흥미로운 집들이 꽤 많았다.

광주는 시장이 아직 무너지지 않은 지역이다. 많은 지역의 재래시장이 거의 몰락의 길을 걷는데 그나마 광주는 버티는 중이다. 한 시장에 '여수왕대포'라는 집이 있다. 닭전 끝에, 검색도 안 되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는 밥집이다. 밥집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중 하나는, 손님이 줄면서 안줏거리를 잘 못 갖춘다는 것이다. 언제 손님이 올지, 오더라도 안주를 제대로 시킬지 알 수 없는 일이므로, 냉동 말고는 질 좋은 재료를 갖추고 있기 힘들다. 여수왕대포는 다행히도 시장 안에 있어서 언제든 재료를 사 댈 수 있다. 시장 술집들이 그나마 괜찮은 제철 안주를 받아들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아예 나만의 노하우도 생겼는데, 미리 여쭈는 것이다. 혹시 먹고 싶은 재료를 사서 가져가도 됩니까, 하고. 물론 합당한 공임을 드려야 하는 일이다. 그렇게 여수왕대포의 시간이 축적됐다. 계절마다 다른 재료를, 가게가 있는 시장의 좌판에서 산다. 봄에는 시금치며 산나물도 사고 병어와 주꾸미도 산다. 가을에는 고등어와 낙지를 사고 계절과는 상관없는 돼지고기를 한 근 끊기도 한다. 일부러 넉넉히 사고 "이놈 다 하지 말고 반은 아짐 드세요"한다. 그랬는데도 기어이 안주는 푸짐해지고, 서울에서는 맛보기 힘든 '지역 막걸리'와 '지역 소주'에 잠시 맛있게 쉬어 가게 된다.

묵은지가 나오는 것도 할매나 아짐들이 운영하는 대폿집의 특징이다. 요새 서울 어디에서 자기가 담근 묵은지를 내준단 말인가. 이런 백반집에 갈 때는 미리 전화를 한다. 언제 아주머니가 아파서 문을 닫을지, 잠시 임시로 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냥 갔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여수왕대포의 아짐은, 헤어질 때는 늘 우신다. 잘 먹고 돌아서면서 늘 가슴이 아픈 이유다. 그 아짐 연세나 행색이나 마음이 딱 우리 어머니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일부러 비싼 기찻삯 물어 가며 가는 건 이런 인정과 맛 때문이다. 이런 집들이 과연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사실 비관적이다. 번듯한 식당도 픽픽 쓰러지고, 이윤도 안 나서 문을 닫는 판에 누가 이런 대폿집 대를 이을 리가 있겠는가.

구례 읍내에 있는 동아식당도 오래 다닌 대폿집이다. 대폿집 풍경 가운데 참으로 멋진 건 한두 잔씩 잔술을 파는 것이다. 잔술은 노동주다. 일하다가 힘들어서 한 잔, 일 끝나서 한 잔, 그렇게 마시고 퇴근하는 사람들의 술이다. 으레 마시는 술이니 안주도 없고, 그저 주인 아짐이 내주는 김치나 반찬 한두 가지에 마시는 막걸리다. 잔술도, 공짜 안주도 거의 없는 서울이니, 이런 광경은 보는 것만으로도 흥겹다. 물론 서울도 예전엔 잔술 문화가 꽤 있었다. 시장에서는 언제든 잔술을 팔았고, 김치보시기 정도는 그냥 냈다. 지금도 중구 중부시장이나 낙원동, 종묘 순라길 같은 곳에는 남아 있는 문화다. 하지만 서울 전체적으로는 사라지고 말았다.

군산은 마산·통영 같은 해안도시가 대개 그렇듯이 술을 한 병 시키면 안주가 딸려 나오는 풍습이 있다. 개명(?)된 시대가 되면서 이런 미풍양속이랄까, 술꾼들을 흥분시키는 재미있는 술집도 거의 없어지고 말았다. 군산도 예외는 아니어서 몇몇 집만 맥을 잇고 있는 듯하다. 그중 시내 시장에 있는 '홍집'이라는 곳이 흥미롭다. 이 집도 술을 한 병 시키면 안주가 나오고, 병 수가 올라가면 더 진한(?) 안주가 나온다. 가게 한 구석, 낡은 아이스박스에 담긴 막걸리며 소주·맥주를 직접 집어 들어다가 먹는 것도 재미다. 나중에 탁자 위의 병을 헤아리면 그만이다.

이집 주인 아짐은 간다고 전화해도 여름엔 오지 말라고 한다. '여름엔 먹을 것이 없어' 하시면서. 말은 그래도 늘 한 상 차려 내는데 예의 묵은지도 나온다. "가을에 오면 참 좋을 것인디, 삼치도 있고 먹갈치도 좋고 낙지도 맛있을 것인디" 하시며 아쉬워하신다. 해안도시는 가을과 겨울이 좋은 철이다. 갯벌과 바다에서 풍성하게 먹을거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바람이 차다. 군산이든 광주든 충청도 어디이든, 대폿집을 다시 가야겠다. 돌아올 때 아짐들의 눈물 바람이 괴롭긴 하지만. 〈음식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구내염

정민영
동신대학교 목포한방병원 교수

구내염을 달고 사는 환자들은 하루하루가 괴롭다. 잊을 만하면 발생해서 식사할 때마다 고통스럽고 일상생활에도 방해가 된다.

구내염은 증상과 발생 부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며 그 원인도 다양하다. 구내염은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영양장애, 위장 장애, 빈혈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입안 또는 입 주변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의해 감염되거나 또는 비감염성으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치아로 볼 안쪽 살을 씹거나 틀니가 잘 맞지 않거나, 음식이나 치약 성분으로 구강 점막이 자극을 받은 경우에도 구내염이 생길 수 있다.

증상은 구강 점막에 발적이나 종창이 생기고 말하거나 식사 시 통증이나 작열감, 미감 감퇴 등을 동반한다. 반복 발작하고 점차 궤양으로 진행되기도 하며 단순 구내염인 경우 일반적으로 5~7일 정도면 자연 치유된다.

구내염은 크게 아프타성 구내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구내염, 곰팡이에 의한 구내염, 자가 면역 질환 등으로 인한 비감염성 구내염, 궤양 질환 등이 있다.

가장 흔한 구내염은 아프타성 구내염으로 염증이 있는 빨간색 둘레를 가진 흰색 궤양이 나타난다. 궤양 부위에서 간지럽고 불타는 듯한 감각을 느낄 수 있으며 자극 시 통증이 발생한다. 면역 체계 이상이나 세균,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구내염으로는 단순 포진, 대상 포진, 수족구병 등이 있다.

단순 포진은 여러 요인에 의해 입 주변과 입술 라인에 수포 등이 생기는 질환이다. 대상 포진은 헤르페스 3형 바이러스가 척추신경절에 잠복해있다가 발생하며 신경 분포 영역에 따라 소수포, 궤양 등을 형성하고 포진 후 신경통이 남아있을 수 있다. 수족구병의 경우 주로 소아에게 발생하는 구강과 손바닥, 발바닥에 수포를 형성하는 전염성 점막 질환이다.

곰팡이에 의한 구내염은 칸디다증이 대표적이다. 틀니를 사용하거나 소모성 질환 또는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잘 발생한다. 구강 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항생제 복용 후에 일어나기도 한다.

세포의 과다 성장으로 생기는 구강 편평태선은 뺨, 잇몸, 혀에 두꺼운 하얀 조각이 생기는 구내염으로 잘 맞지 않는 틀니를 사용하거나 볼 안쪽 살을 씹는 습관이 있는 사람, 흡연자에게 흔히 나타난다. 자각 증상이 없기도 하지만 심할 경우 매우 쓰라린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구내염과 관련된 자가 면역 질환으로는 베체트병이 있다. 베체트병은 아프타성 구내염, 새익기 점막의 궤양성 변화, 홍채염 등의 안구 증상 같은 독특한 세 가지 증상을 보이는 증후군이다. 구내염이 심하게 생기거나 자주 생기게 되면 다른 증상은 없는지 살펴보고 기저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재발이 잦거나 병력이 오래된 분, 레이저로 지지거나 알보칠 등 구내염 치료제를 사용했을 때 고통이 너무 싫은 분, 자신의 생활·체질·증상에 맞춰 세심하게 치료를 받고 싶은 분, 구내염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분들은 한방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

평소 양치질과 가글 등으로 입안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충치 치료나 스케일링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점막에 자극을 주는 맵고 뜨거운 음식을 피하고, 음주와 흡연을 멀리한다.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조절이 필요하다.

구내염은 평소 섭취하는 음식에 신경을 써야 한다. 뜨겁거나 맛이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정제당류가 많은 빵과 과자류도 염증 반응 및 회복에 방해가 되므로 줄이는 것이 좋다. 특히 비타민 B군과 철분, 아연, 엽산 등을 고루 섭취해야 한다.

입이 건조하게 되면 침이 보호 기능을 못해 입 안에 들어온 세균의 번식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평소 물이나 수분이 많은 음식 등을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구내염에 좋은 음식으로는 결명자와 가지, 토마토, 바나나, 우유, 미역 등을 들 수 있다.

기 고

농업재해보험 제도 개선 필요하다

기영윤
농협 구례교육원 교수

미래의 불안에 대비하려는 것은 본능에 가깝다. 그 불안은 인간으로 하여금 미지의 신을 찾게 하고,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 부담을 나누는 각종 제도를 만들게도 했다. 우리의 전통적인 상호 부조 제도인 계(契) 역시 미래에 닥칠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서구에서는 이미 기원전 3세기에 일종의 상호 부조 조합인 '에라노이'(Eranoi)가 그리스에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다.

근대 사회가 성립되면서 불안이 있는 곳, 즉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자리 잡은 것이 보험이다. 신체와 생명의 불안, 재산상의 불안 등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극복하자는 기획이었다. 문제는 불안이 현실화되는 시점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험 가입을 꺼리거나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에 불만을 갖기도 한다. 핼리 혜성을 발견한 핼리가 인간의 수명에도 대수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핼리의 사망표를 만들고 나서야 비로소 오늘날의 생명 보험이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다.

인간의 수명보다 더 예측과 통제가 어려운 것이 농업이다. 농업은 자연을 등질 수 없기 때문이다. 변화무쌍한 기후와 알 수 없는 병해충 발생 등 다양한 변수가 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기후 변화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닐 정도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유례없는 긴 장마와 홍수가 있었고, 몸집이 커진 태풍이 몇 차례나 덮쳤다. 꽃이 필 시기에 내린 서리와 우박 등 자연재해가 예년보다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농가 경영 활동의 큰 위협 요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농산물 생산마저 위협한다.

그래서 생명 산업이라는 농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를 위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오래전부터 미국과 유럽 등 농업 선진국에서는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의 경영 위험과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적극 활용해 왔다.

우리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이 이제 20년이 되었지만 가입률이 매우 낮다. 올해 7월 말 현재 보험 대상 60여 개 농작물의 보험 가입률은 평균 41%에 그쳤다. 게다가 품목별 격차도 심해 가입률이 50%를 넘는 것은 사과, 배 등 다섯 개에 불과하다. 농업인들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받는 보험금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낮기 때문에 가입을 꺼린다고 말을 한다. 또한 재해가 잦은 지역의 농가에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더 받는 지역 할증률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자연재해가 농업인의 과실도 아닌데 자동차 보험처럼 농업인에게 과실 책임을 묻는 격이라는 불만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한 정부의 정책 보험이다. 동시에 운영은 민간이 하는 민영 보험이라는 이중성을 안고 있다. 농가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최대한 적게 내고 보험금은 최대한 많이 받으려 한다. 민영 보험사는 어떤 경우에도 손실은 피하려 한다. 시장의 딜레마다. 민간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내년도 농업재해보험 예산은 4388억 원으로 올해보다 오히려 406억 원이나 적게 책정되었다. 농업재해보험을 마치 농가 소득 보전 정책으로 한정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농업재해보험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시장에 맡겨두기 보다는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의 관점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에 닥친 위기는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다.

社 說

부영주택 '공공성 확대' 끝내 거부하려는가

한전공대 부지를 기증하고 남은 골프장 잔여 부지에 고층 아파트 단지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주)부영주택이 지역사회가 바라는 '공공성 확대'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중·고교 용지 배정은 물론 나주시가 권고한 용도변경안조차 거부한 채 당초 사업 계획안만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나주시는 최근 부영 측의 계획안을 토대로 부영CC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범위를 공고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 공고에 따르면 부영 측은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CC 잔여 부지 35만 2294㎡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30만 6926㎡를 아파트 용지로, 나머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1만 5000㎡), 완충 녹지(1만 7830㎡), 도로(1만 2537㎡)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 7월 제안서와 같은 내용으로, 교육·행정 당국의 요구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다. 앞서 전남도교육청은 대단위 아파트 신설로 다수의 학생 유입이 예상된다며 초등·중학교 용지 3만㎡, 고등학교 용지 2만 7000㎡를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자연녹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특혜라는 여론에 나주시가 제2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하지만 부영 측은 이 역시 거부했다고 한다.

이러한 부영 측의 태도는 지역 사회의 '공공성 확대'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수익성만 극대화하겠다는 심산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한전공대 부지 기증이 막대한 이익을 노린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신설 등 공익적 의무마저 다하지 않는다면 특혜 논란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부영 측이 고층 아파트 단지 조성 근거로 제시한 2015년부터 3년간 인구 증가율(24.1%) 역시 2018년 이후에는 급격한 하락 추세인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는 지구 지정 및 규모의 적정성과 주변 경관과 조화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문화도시 광주에 대형 도서관 하나 없다니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에 도시의 문화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와 전남에는 '열람석 2000석 이상' 규모이거나 '장서 40만 권 이상'을 보유한 대형도서관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뜩이나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인프라마저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열람석 '1000석 이상' 공공도서관 수는 전국에 총 41개인데, 이 중 19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광주의 경우 무등도서관(북구)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서구) 등 2곳, 전남은 나주공공도서관과 장성공공도서관 등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광주·전남의 교육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는 자료다.

열람석 2000석 이상의 대형 도서관은 부산시민도서관, 인천중앙도서관, 대전 한밭도서관, 경기안양석수도서관 등 4곳이 있다. 도서 자료 40만 권 이상을 소장하고 있는 공공도서관도 서울 3개를 비롯해서 부산·대구·인천 등에 하나씩 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 지역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 격차 해소는 물론 소외 계층의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 인프라다. 특히 정보화 시대를 맞아 도서관은 단지 책을 빌리고 읽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복합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도서관이 없는 도시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이제 도서관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인프라 확충을 서둘러야겠다.

無 等 鼓

'손 그림' 영화 간판

나의 첫 영화관 경험은 지금은 없어진 '천일극장'이었던 것 같다. 여기서 봤던 영화 중 기억에 남는 건 열세 살 소년 가장의 이야기가 슬펐던 '엄마 없는 하늘 아래'다. '로보트 태권 V' 등 만화영화 주제가를 따라 부르며 영화에 빠져들었던 추억도 있다. 현재의 한미쇼핑 자리에 있던 시민관이나 천변에 있던 현대극장도 떠오른다. 학창 시절, 시험이 끝나면 항상 진행됐던 단체영화 관람의 단골 장소였다.

당시 영화관을 상징하는 건 큼지막하게 걸려 있는 '간판'이었다. 멋진 주인공과 하나도 닮지 않은 간판 그림에 가끔 웃음이 터지기도 했지만, 극장 앞을 지나면서 유명 배우들이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는 간판을 볼 때면 영화관으로 달려가고픈 마음이 일곤 했다. 지금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일반화되면서 손으로 그린 간판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때는 디지털로 프린트된 간판이 걸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영화 포스터가 홍보용으로 사용될 뿐이다.

1935년 개관해 올해 85주년을 맞은 광주극장에는 재미있는 공간이 많다. 일제강점기 단속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이 앉았던 특별한 좌석인 임검석(臨檢席)은 지금도 그대로 있다. 극장 지하에 있는 간판실도 흥미로운 공간이다. 광주극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금도 손으로 그린 간판을 내거는 극장이다. 국내의 마지막 간판장이인 박태규 작가가 간판을 그리고 작품 활동도 하는 이곳에 들어서면 세월이 거꾸로 흐르는 듯하다.

광주극장은 5년 전부터 특별한 행사 '시민 간판 학교'를 열고 있다. 광주극장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직접 그려 보는 이벤트다. 올해는 열 명의 시민이 참여해 '남매의 여름밤' '패왕별희' '백 투 더 퓨처' '피아니스트의 전설' 등의 영화 간판 작업을 진행했다. 최근 광주극장 개관 85주년 기념식에서는 간판 상판식이 열렸다는데, 다음에 극장에 가게 되면 새롭게 걸린 간판 구경을 해야 할 것 같다.

손재주가 없어 직접 간판을 그릴 엄두는 나지 않지만, 나의 '인생 영화'를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며 행복해진다. 만약 당신이 간판을 그린다면 어떤 영화의, 어떤 장면을 그리고 싶으신가요? /김미은 문화부장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